



忠北大同門會報

真理
正義
開拓

발행인 : 김주섭 편집인 : 박노균 발행소 : 충북대학교총동문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전화 : 043-261-3121 FAX : 043-272-3122 인쇄처 : 중부출판사

제14회 충동문체육대회



주 | 요 | 내 | 용 | 목 | 차

- 제14회 충북대학교 충동문체육대회 1
- 동문회 소식
 - ▶ 충동문회 행사 2
 - ▶ 산하동문회 소식 3
 - ▶ 동문동정 4
- 학내소식 6
- 동문단상
 - ▶ 베르겐과 융프라우요흐에 이르는 길 / 박노균 10
- 실용정보
 - ▶ 논술의 정의와 논술연습 / 이은경 12
 - ▶ 새벽자연체험프로그램 / 김연숙 15
- 광고 16

지난 10월 28일(토) 모교 대운동장에서 제14회충동문체육대회가 18개 직장 및 지회(건설교통부, 충북도청, 충북대학교, 청주시청, 청원군청, 충북대부설중고, 법원·검찰청, 경찰청, 도로공사,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토목학회, 경영대학원, 농협, 개신회, 개신상공인회, 흥덕연구소, 경매회) 1500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배구, 족구, 줄달리기, 800m계주 등 경기 종목을 통하여 동문들 상호간에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김주섭 총동문회장은 대회를 통해 “그동안의 세상사를 잊고 모교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정열을 갖고 행사에 임해, 총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으며, 임동철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도 모교의 발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충북대 동문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 박석순(진명건설(주) 회장)자문위원이 동문회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하였다.

경기 결과, 종합우승은 경영대학원(회장 신현구), 종합준우승은 흥덕연구소(회장 최현호), 종합 3위는 토목학회(회장 이풍희)팀이 차지했으며, 종목별로 배구는 충북대부설중고, 족구는 개신회, 줄달리기는 흥덕연구소, 800m계주는 경영대학원팀이 차지했다. 경품 추첨에서 최고의 행운(삼성하우젠 김치냉장고)는 농협에 근무하는 엄정식(무역86) 동문에게 돌아갔다.

이날 내빈으로 홍제형·오제세 국회의원, 임동철 총장, 정상길 주성대 학장, 남상우 청주시장, 한대수 전 청주시장, 이두영 CJB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 총동문체육대회에 도움을 주신 분 : 임동철 총장, 김석현 사무국장, 박찬수 산학협력단장, 유태준 농협충북대지점장, 송석우(축산59), 강신우(농학61), 곽정수(농공63), 연홍철(농화63), 정상길(농화64), 신주식(농학65), 이문희(농학65), 이우영(농학65), 이학수(연초68), 김현필(체육69), 김태훈(화공70), 양재욱(약학70), 임상화(약학70), 강기동(농학72), 김완식(토목72), 김종훈(축산72), 변근원(농공72), 정찬문(연초72), 조승영(토목73), 곽소신(토목74), 김덕구(토목74), 김명수(체육74), 김영희(토목74), 윤석현(토목74), 허 백(토목74), 박재훈(농학75), 이희숙(가정75), 나명찬(행정77), 이명원(토목76), 안재형(전기77), 조완영(수학77), 정창환(경영77), 한성권(농경77), 김요식(화공78), 임병덕(역사78), 이왕영(원예78), 정인철(토목78), 김동영(연초79), 김황호(건축79), 김현택(토목79), 유운기(행정79), 이혁렬(화학79), 장덕수(농기79), 조천희(토목79), 이면재(약학80), 황영호(행정80), 김사석(체육81), 김우성(법학81), 신민철(토목81), 유흥열(토목81), 최현호(법학81), 김기동(생물82), 신동협(무역82), 신현구(경제82), 조성록(인학82), 최석근(토목82), 황운서(경제82), 황재봉(농학82), 이상수(원예83), 신흥섭(경영84), 양승덕(의학85), 유상용(약학86), 최현일(환경86), 손인석(경영90), 권광택(경정00), 김민호(산업석), 심재복(산업석), 연영만(산업석), 이풍희(산업석), 정내현(산업석), 한상관(산업석), 김봉명(경영원), 채성석(경영원), 고규강(교육원)

▶ 기초의원(30명) : 이한철(체육72), 김명수(체육73), 김동구(농기계78), 황영호(행정80), 김기동(생물82), 황재봉(농학82), 최진현(정의90), 유용철(회계91), 박용현(산업대학원), 유성훈(산업대학원), 임기중(산업대학원), 안혜자(행정대학원1), 김영권(행정대학원4), 박희남(행정대학원9), 오석영(행정대학원11), 신성우(행정대학원12), 김경수(경영대학원11), 박종룡(경영대학원12), 구본선(경영대학원13), 변종운(경영대학원14), 오창영(경영대학원22), 박세복(경영대학원26), 김경식(경영대학원34), 김경숙(경영대학원총주1), 김광철(법무대학원4), 박종성(전문농업인1), 박범출(전문농업인2), 정창용(전문농업인2), 김현기(전문농업인4), 윤근량(전문농업인5)



제52차 정기총회

3월 24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제52차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신방웅 총장, 오제세 국회의원, 김주섭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200여 동문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자랑스런 동문에 대한 시상, 장학금 수여, 2005년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보고 등이 있었으며, 제25대 회장으로 연임된 김주섭 총동문회장의 인사, 신방웅 총장의 격려사, 오제세 국회의원의 건배가 있었고, 5.3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인사로 총회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가운데 종료되었다.



- ◎ 공로패 수상 동문
 - 곽정수(농공63) 교육자 동문회장
 - 김상필(토목70) 한국농촌공사 동문회장
 - 권수한(과학71) 전 사무총장
 - 박노균(국어73) 동문회보 편집위원장
 - 김영희(토목74) 한국수자원공사 동문회장
 - 박경국(농경77) 충청북도청 동문회장
 - 황운서(경제82) 개신상공인회장
- ◎ 축하패 수상 동문
 - 박지나(법학00)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 감사패 수상 동문
 - 장덕수(농기79)(주)충북소주 대표이사
 - 유성훈(주)파서블 대표이사

- ◎ 장학생
 - 염승현(기계공학4), 조은대(정보통신3), 김수환(체육4), 임현빈(체육4), 이용훈(체육3), 최다운(체육3), 남상민(미술3), 정해민(미술2)

제 6회 충동문 골프대회



5월 17일 청주그랜드C.C에서 '제6회 충동문 골프대회'가 임동철 총장, 김주섭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150여 골프동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신록이 무르익어 가는 화창한 날씨 속에 리운딩된 이날 행사에는 주지문 전총장, 강신우 총동문회 고문, 이규복(약학56)동문 등이 참석하여 더욱 행사가 빛났다.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성 명	학과 및 학번	비 고
메달리스트	김 현 택	토목 79	74
종합 2위	장 수 정	산업대학원	76
종합 3위	조 천 희	토목 79	77
신페리오 우승	장 봉 우	체육 73	70
" 준우승	서 정 필	토목 70	70
" 3위	심 두 진	경영 80	71
실버 우승	박 봉 규	경영대학원1	71
" 준우승	김 영 의	토목 70	73
" 3위	신 영 철	농학 63	73
여성 우승	노 인 숙	국어 73	82
장 타 상	김 봉 수	토목 81	260m
니 어 상	심 재 복	산업대학원	2m
버 디 상	서 중 원	토목 81	3EA
파 상	정 수 현	전기 81	12EA
보 기 상	박 숙 란	가정 73	14EA
최고선배대상	이 규 복	약학 56	

- ◎ 도움을 주신 분 : 임동철 총장, 임상화(약학70), 김완식(토목72), 안재경(약학72), 곽소신(토목74), 정창환(경영77), 정인철(토목78), 정광희(농화79), 김사석(체육80), 박필현(미술80), 김종복(산업석), 박용범(산업석), 장수정(산업석), 정내현(산업석)

임동철 총장 및 모교 관계자와 간담회

6월 1일 도성에서 모교 임동철 총장 및 모교 관계자와 총동문회 임원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 5월 10일 제8대 총장으로 취임한 임동철 총장에 대한 축하와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신임 학처장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자리로 오찬을 겸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주섭 총동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임 총장에 대한 축하와 모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임동철 총장도 환영의 자리에 감사함을 표하고, 이 지역사회에서의 동문들의 역할과 활성화된 동문들의 모습에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다며 모교 발전에 동문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동문회 소식

총동문회 행사

상임이사회 및 5.31 지방선거 당선동문 축하연

6월 9일 오후 6시 30분 용암동 매직프라자에서 '총동문회 상임이사회 및 5.31 지방선거 당선동문 축하연'이 임동철 총장 및 모교 관계자와 김주섭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15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 24일 제52회 정기총회에서 총동문회장에 위임된 임원(자문위원, 부회장, 상임이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48명 동문에 대한 축하패 수여가 있었으며, 김주섭 총동문회장의 인사, 임동철 총장의 축사, 당선자를 대표하여 증평군수로 재선된 유명호 동문의 답사, 고규강 자문위원의 건배 제의, 기념촬영,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 ◎ 신임 임원
 - ▶ 자문위원 : 정상길(농화64), 이우영(농학65), 이두영(경원최5)
- ◎ 5.31 당선 동문
 - ▶ 기초단체장(5명) : 유명호(약학61, 증평군수), 엄태영(화공77, 제천시장), 이기하(농생물83, 오산시장), 유영훈(행정대학원3, 진천군수), 이항래(경영대학원3, 보은군수)
 - ▶ 광역의원(11명) : 연만홍(농학73), 한창동(농학73), 이기동(경영79), 김법기(전산86), 김대천(토목87), 김혜원(정의96), 권광택(경정00), 최광욱(행정대학원3), 박종갑(행정대학원12), 장주식(경영대학원20), 정운숙(경영대학원20)

- 모교 참석자 : 임동철 총장, 김영창 교육연구처장, 장봉우 학생입학처장, 김경석 기획협력처장, 박찬수 산학협력단장, 김석현 사무국장, 김기원 총무과장, 이기섭 비서실장
- 동문회 참석자 : 김주섭 회장, 류태기·곽정수 자문위원, 김태훈·임상화·손영철·박노균·이명원·김요식·최현호 부회장, 류길영 사무처장



충북대 동문 기자 간담회

7월 20일 12시 가화한정사에서 충북대 동문 기자 간담회가 모교 임동철 총장 및 관계자, 김주섭 총동문회장 및 회장단, 그리고 모교 출신 기자들(변근원 충청리뷰 대표이사, 김태훈 YTN 청주국장, 박민순 MBC 보도국장, 지용익 중부매일 편집국장, 오영근 CJB 기자, 함우석 한빛일보 부장, 이광형 동양일보 편집국장, 구병희 KBS 기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는 총동문회 주관 하에 모교 및 동문회 발전에 기여하는 동문 기자들을 격려하고, 동문 기자(약 60명) 상호간 친목도모를 꾀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개신상공인회 창립 13주년 기념식

9월 26일 개신상공인회 창립 13주년 기념총회가 용암동 타이양에서 임동철 총장, 김석현 사무국장, 김주섭 총동문회장, 유길영 사무처장과 한준호(토목82) 개신상공인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는 개회사, 한준호 회장 인사, 김주섭총동문회장 격려사, 임동철 총장 축사, 전년도 이수현 사무처장과 박혜순 상조회장에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만찬과 함께 모교 및 동문회 발전에 대한 다양한 대화시간을 가졌다. (☎ 011-465-1538)



일시 : 2006. 9. 26 장소 : 타이양

'2006년도 동문 임용교수 간담회

9월 15일 도성에서 2006년도 모교에 임용된 동문교수와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동문회장은 지난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임용된 동문교수 12명에 대하여 축하하고 앞으로 모교에 재직하는 동안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 것을 당부하였다. 임용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일	성명	학과학번	직위
3.1.	윤홍섭	영어 78	조교수
	강창숙	지리 81	전임강사
	홍기남	토목 89	전임강사
7.1.	신동익	의학 89	조교수
	김시경	의학 91	전임강사
9.1.	김재중	대학원	부교수
	이준상	과학 81	부교수
	서상택	농경 85	전임강사
	안광국	토목 85	전임강사
	윤석중	의학 88	조교수
	이희정	과학 89	조교수



박석순(영원고)동문 동문회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10월 28일 제14회 총동문체육대회식장에서 박석순(진명건설(주) 회장) 동문이 동문회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하였다. 박 동문은 동문회 자문위원으로 모교 사랑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실천하는 동문으로 이미 1,000만원을 모교에 기탁하였으며, 모교 및 각종 동문회 행사에 후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인으로 충북승마협회장, 민족통일 충청북도협의회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우암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 건설공제조합 중앙대의원, 충북대학교 발전후원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255-3225)

총학생회장단 간담회

7월 15일 오후 7시 로얄관광호텔에서 총학생회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연홍철 회장의 인사, 임동철 총장의 축하와 강연이 있었다. 도의원으로 당선된 이기동 회원에 대한 축하의 꽃다발 전달과 만찬을 하면서 모교 발전에 대하여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사무국장 김영주 : 016-401-3056)



7. 31 교육위원 당선자

7월 31일 충청북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흥덕고등학교장 곽정수 동문(농공63), 청주남중 교사 김병우 동문(국

어76), 중앙초등학교장 박노성 동문(교원석)이 당선되었다. (☎ 곽정수 : 011-462-8235, 김병우 : 011-271-1574, 박노성 : 011-483-5470)



산하동문회 소식

영어교육과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동문회(회장 이규필 73)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가 8월 15일 10시부터 1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대부설고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충북대 교직원동문회장으로 이번에 도교육위원회에 당선되신 곽정수 동문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재학생 2명에게 각각 50만원씩 동문회 장학금이 전달되었으며, 이외는 별도로 2,000년부터 매년 1명에게 A급 장학금을 전달해 온 84학번 동기모임인 영우회(회장 차준식)에서 장학금 전달식도 있었다. 동문회 장학기금은 전임 박정희 동문회장(단산중교장, 72)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해마다 100여만원씩 자동이체되고 있으며, 이번 체육대회를 연합 주관한 85/86학번 동문(대표 류근원, 85)들은 성금 100만원을 동문장학기금으로 기탁하기도 했다. 배구와 탁구, 그리고 테니스 경기등으로 진행된 이날 체육대회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료되었다.



충북대학교 영어교육과 총동문회

교육자동문회 체육대회



6월 4일 교육자동문회(회장 곽정수) 체육대회가 임동철 총장, 김주섭 총동문회장, 류태기 전임회장을 비롯한 1,0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대 부설중고에서 열렸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날 행사는 개회사, 총장의 축사, 총동문회장의 격려금 전달 등이 있었으며 각 학과 별로 배구, 테니스, 족구, 탁구, 투호 경기가 진행되었다.

경기결과 성적은 다음과 같다.

- 입장상 : 1위 수학교육과·미술교육과, 2위 영어교육과·농업과
- 배 구 : 우승 체육교육과, 준우승 윤리교육과, 3위 국어교육과·수학교육과
- 테니스 : 우승 체육교육과, 준우승 과학교육과, 3위 수학교육과·영어교육과
- 족 구 : 우승 국어교육과, 준우승 영어,교육과 3위 수학교육과·체육교육과
- 탁 구 : 우승 국어교육과, 준우승 가정교육과, 3위 체육교육과·사회교육과
- 투 호 : 우승 체육교육과, 준우승 사회교육과, 3위 교육교육과·미술교육과

개신민우회 체육대회

6월 6일 모교 몽마르트 언덕에서 개신민우회회장 김형근 체육대회가 300여 동문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농촌공사 정기총회

3월 17일 오후 7시 한국농촌공사동문회(회장 김상필) 제6회 정기총회가 1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리호관 광호텔에서 열렸다. 총회에서는 김상필 회장의 인사와 퇴직 동문 감사패, 기술사 취득 동문 축하패, 승진 동문에 꽃다발 증정이 있었으며, 김주섭 총동문회장의 축하인사와 더불어 화기애애한 가운데 마감하였다.

- ◎ 퇴직 동문 : 신범호(농공68), 김규성(농공69), 이기철(농학69)
- ◎ 기술사 합격 : 배화진(농공90), 이범준(토목91)
- ◎ 승진 : 1급 승진 이경구(농공71), 3급 승진 이종찬(토목76), 신동노(농공80), 이상빈(농공81), 김응길(농학81), 김성규(법학81), 이흥규(토목84), 박건호(토목84), 한재원(농공87), 조항준(토목88)



법무대학원동문회 이사회

6월 28일 법무대학원이사회가 법과대학에서 열렸다. 이사회는 로스쿨에 따른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임원진을 개편하였는데 회장에 김종록(2기) 도청 경제통상국장, 사무국장에 김재두(6기) 동문이 임명되었다.

연초학과동문회

6월 4일 오전 9시 연초학과 동문회 제27회 정기총회 및 제15회 기별체육대회가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과학기술센터에서 열렸다. 정기총회에서는 김응모(70)회장의 인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보고, 임원선출이 있었으며, 연연초생산조합중앙회 과장인 김용수(71) 동문이 신입 회장에 선

출되었다. 한편 기별체육대회는 농업과학기술센터 앞 농구장에서 족구, 배구 등의 경기가 실시되었다. (☎ 261-2518)

토목공학과 동문가족체육대회

4월 30일(일) 토목공학과동문회(회장 송석철 74) 동문가족체육대회가 모교 소운동장에서 90학번 주관하에 500여 동문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팀으로 나누어 스승과 제자 배드민턴 경기, 배구, 족구, 어린이 줄달리기, 어머니 줄달리기, 축구, 계주, 가족3인 경기, 단체 줄넘기, 물풍선 던지기, 훌라후프, 가족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 262-3900)



취 임

▶ 오문근(농공69) 동문, 농협 청주교육원장
1월 20일 농협대학 교학처장인 오문근 동문이 농협 청주교육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298-5501, 011-9734-6128)

▶ 이상열(토목70) 동문, 전문건설협회 충북 회장
11월 1일 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 8대 회장에 구백건설(주) 대표이사인 이상열 동문이 취임하였다. (☎ 292-3627, 016-567-3627)

▶ 이종근(체육70) 동문, 청주여성 교감
9월 1일 본회 부회장인 이종근 동문이 청주여자상업고교 교감으로 승진 취임하였다. 이 동문은 현재 MBC스포츠 씨름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충북씨름협회장, 본 동문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였다. (☎ 288-7362, 011-461-6085)

▶ 김익균(과학72) 동문, 모교 사범대학장
6월 14일 사범대학장 선거에서 모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교수인 김익균 동문이 당선되어 9월 1일 취임하였다. (☎ 261-2741, 011-498-2746)

▶ 이한철(체육72) 동문, 음성군의회 부의장
지난 5. 31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이한철동문이 7월 7일 제170회 음성군 임시회에서 제5대 의장단 부의장에 선출되어 취임하였다. (☎ 011-461-0449)

▶ 장봉우(체육73) 동문, 모교 학생입학처장
5월 9일 모교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 교수인 장봉우



동문이 학생입학처장에 취임하였다. (☎ 261-2004)

▶ 박소신(토목74) 동문, 모교기성회장 취임



7월 1일 SK건설(주) 부장인 박소신 동문이 모교 기성회장에 취임하였다. 박 동문은 박호준(토목01), 박호승(법학03) 두 자제가 모교에 재학중이다. (☎ 011-462-4266)



▶ 이희숙(가정75) 동문, 모교 생활과학대학장

3월 1일 모교 주거환경소비자학과 교수인 이희숙 동문이 생활과학대학장에 취임하였다. (☎ 261-2692)



▶ 나명찬(행정77) 동문, 기업은행 청주지점장

1월 2일 나명찬 동문이 기업은행 청주지점장으로 취임하였다. (☎ 011-9757-5764)



▶ 유봉걸(행정77) 동문, 충북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장

5월 1일 대전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서기관인 유봉걸 동문이 충북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장으로 부임하였다. (☎ 230-5317)



▶ 김동구(농기계78) 동문, 진천군의회 부의장

7월 7일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제5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김동구 동문이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 011-486-6423)



▶ 김진상(토목79) 동문, 직지리이온스 회장

6월 20일 고려사무용가구 대표인 김진상 동문이 청주 직지리이온스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 291-8822, 011-402-1178)



▶ 김학수(농경79) 동문, 농협 충일지점장

1월 20일 농협중앙회 공제사업부 팀장인 김학수 동문이 충주시 충일지점장으로 취임하였다. (☎ 853-3145, 011-483-0546)



▶ 이기동(경영79) 동문,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7월 5일 충청북도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이기동 동문이 충청북도 의회 제8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선거에서 교육사회위원장에 선출되었다. (☎ 011-719-6994)



▶ 정광희(농공79) 동문, (주)종근당 이사

1월 2일 (주)종근당 인천지점장이었던 정광희 동문이 마케팅담당이사로 취임하였다. (☎ 3149-7910, 011-201-6556)



▶ 조봉제(경제80) 동문, 신한은행 지점장

1월 2일 조봉제 동문이 신한은행 조치원지점장으로 승진 취임하였다. (☎ 011-

9123-0046)

▶ 최병윤(건축80) 동문,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7월 29일 (주)석진산업 대표이사인 최병윤 동문이 제4대 충북아스콘협동조합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최 동문은 지난 6월 20일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며, 그동안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충북청년회의소(JC)지구 회장, 일반건설 음성군 협의회장을 역임하였다. (☎ 872-1580, 011-461-2949)

▶ 정동학(경영81) 동문, 제천 신광감리교회 담임목사



1월 5일 정동학 동문이 제천시 신백동 신광감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 652-7092, 010-8378-0064)

▶ 김홍구(경제82) 동문, 주성대학 학생지원실장



3월 2일 주성대학 부동산학과 교수인 김홍구 동문이 학생지원실장에 취임하였다. (☎ 210-8158, 017-408-0822)

▶ 권광택(경영00) 동문, 충북 라이온스 총재



7월 13일 오후 5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권광택 동문이 충북지구 라이온스총재에 취임하였다. 권 동문은 지난 5. 31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었고, 현재 옥산아스콘(주), 옥산레미콘(주), 환희개발(주) 회장을 맡고 있다. (☎ 260-2222, 011-460-0364)

▶ 김경수(경원최1) 동문, 청원군의회 의장



7월 7일 김경수 동문이 청원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에 취임하였다. (☎ 016-462-6449)

수 상

▶ 이원춘(과학75) 동문, 대통령 표창



5월 19일 제41회 발명의 날 발명지도교사 유공부에서 성남서고 교사인 이원춘 동문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동문은 전국학생 발명 두뇌올림픽대회 대상 수상 지도 등 각종 학생발명 관련대회에서 수많은 학생의 입상을 지도하였으며, 발명창의력반을 운영하면서 '1학생 1아이디어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40여건의 실용신안을 등록하였고, 발명축진순회 강연회 및 각종 발명교육 강의(80여회)를 통하여 발명마인드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허청 발명교육 프로젝트 등 각종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발명교육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031-752-8965, 010-3318-0846)

▶ 장덕수(농기79) 동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로상



7월 7일 (주)충북소주 대표이사인 장덕수 동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31 지방선거에서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구현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주)충북소주는 5.31 지방선거에 앞서, 지난 5월 19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충북소주가 생산하는 '시원한 청풍' 5,000만병의 뒷면 라벨에 '충북의 희망을 짊

자! 이제 정책으로 판단합시다'는 내용의 선거관련 광고문안을 게재하였다. (☎ 011-461-4676)



▶ 우선희(농학80) 동문,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물화학우수 논문상

5월 25일~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06년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선희 동문은 가장 우수한 논문 발표자로 선정되어 연구자상(Best Research Award)을 수상하였다. 우 동문의 수상 논문은 "벼의 종자등술에 있어서 단백질체 해석"이라는 연구로서 식물의 대표적 모델인 벼 및 애기장대 유전체 서열이 규명되고 벼 식물체 내의 5만여개의 유전자 존재가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의 생명과학연구는 이들 유전자들의 기능을 밝히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 261-2515)

▶ 김귀학(경원최22) 동문, 특허청장상



7월 6일 제10회 여성경제인날 기념식에서 모범여성기업인 부문에서 (주)홍해초 대표이사인 김귀학 동문이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김 동문은 단순한 김에 전통한국의 맛을 입혀 김치맛김, 갈비맛김, 녹차김 등 기능성 김을 개발, '맛의 차별화'를 이룩하여 포화된 김 시장의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한 기업인으로 알려졌다. (☎ 216-9285, 011-462-8720)

▶ 충북미술대전(5월28일)

- 대상 : 김기영(교원석)
- 특선 : 한성수(서양화4), 김기범(동양화4), 민병준, 김영근(조소3년)
- 입선 : 이미선(조소2), 황학삼·정해민·연홍석·임태경·강나리·홍종철(동양화3), 조아름(동양화4), 서석순(대원석), 유순상(서양화3)

▶ 소사별 미술대전(6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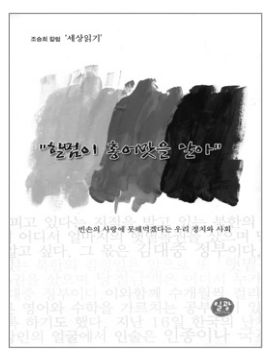
- 최우수상 : 신수정(조소2)
- 우수상 : 한대희(동양화4)
- 특선 : 민복기(조소3), 이현미·지유혜(동양화4), 한성수(서양화4), 유순상(서양화3)
- 입선 : 조아람·이정희·이정해(동양화4), 김희용·정택성(조소3), 추연신(서양화3), 이동희(조소2)

출 간

▶ 조승희(임학68) 동문, 「할머니 흥어맛을 알아」



3월 12일 중부매일신문 논설주간인 조승희 동문이 30여년간 기자생활을 하면서 조승희 칼럼 '세상읽기'를 정리 편집한 「할머니 흥어맛을 알아」를 출간하였다. (☎ 016-464-2672)



▶ 도중환(국어73) 동문, 시집「해인으로 가는 길」



(사)민족작가회의 부이사장, 청주민예총지회장인 도중환 동문이 「해인으로 가는 길」을 출간하였다. 해인이란 '일체를 깨달아서 아는 부처의 지혜'를 이르는 말로 도 동문은 해인에 닿기 위해 자기 자신

과 싸우며 끊임없는 자아 성찰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시 속에 담아 놓았으며, 수익금 전액은 베트남 평화학교 사업에 기부할 예정이어서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 011-230-0354)

▶ 조덕영(농화76) 동문, 「과학과 신학의 새로운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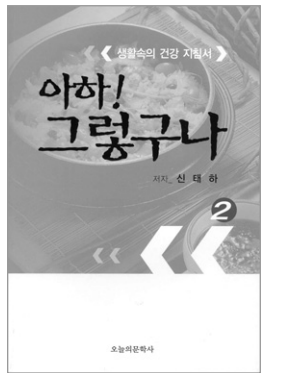


신학박사인 조덕영 동문이 포스트모던시대 '과학과 신학'의 제반 문제를 다룬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종합 해석서 「과학과 신학의 새로운 논쟁」을 냈다. 조동문은 현재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겸 서울 참기쁜교회를 담임하면서 「과학으로 푸는 창조의 비밀」, 「기독교와 과학」, 「외계생명체 논쟁과 기독교」 등 20여권의 역·저서를 낸 전문가이다. (☎ 011-9963-0691)

▶ 신태하(약학79)동문 「아하! 그렇구나1,2」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신태하동문이 건강지침서인 「아하! 그렇구나1,2」(오늘의 문학사)를 출간하였다. 신동문은 약물의 효능과 오남용에 대한 이야기, 전통 약초 처방, 발병 원인과 체질, 체형에 맞는 운동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혜와 상식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 220-5523)



미 담

▶ 김요식(화공78) 동문 '사랑의 Magic 孝'행사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선프라자 회장인 김요식 동문은 용암동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대접하는 '사랑의 Magic 孝' 행사를 실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김 동문은 평소 경영철학대로 수익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 매년 1월 1일 아침엔 떡국, 연말엔 소년소녀 가장에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 298-6700)

▶ 오덕근(회계86) 동문, 2006충북도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1위

9월 15일 충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2006지방공무원 소양고사에서 흥덕구청 세무과 오덕근 동문이 1위를 차지하였다. 지방공무원 소양고사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우수 공무원을 발탁 등용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 269-8501, 010-5778-7004)

2006고시합격자명단

- 제 48회 사법시험
신국희(법학부,97)
- 제 41회 공인회계사시험
김배일(회계학과 96), 임태식(회계학과 96)
황영길(경영학과 96)
- 제 43회 세무사시험
신국성(회계학과 91), 최선미(안전공학 96)
김세희(경영학부 98), 유영진(경영학부 98)
이건영(경영학부 99)



제8대 임동철 총장 취임식 거행

모교 제8대 총장 임동철 박사의 취임식이 5월 10일 오후 2시 본부 3층 대강연실에서 거행됐다. 이날 취임식은 홍재형 모교발전후원회장과 이원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지역의 지도층 인사, 언론계·학계 인사, 동문회장, 기성회장, 교육독지가들을 비롯해 교수 및 직원, 학생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임 총장의 취임사,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외부 인사들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창의적이고(Creative), 뛰어난 역량을 갖춘(Brilliant), 혁신적인(New) 대학(University)을 의미하는 'Project CBNU 2010'을 우리 대학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충북대학교를 창의적이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혁신적인 대학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4년 동안 대학을 운영할 4대 운영 방안으로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과 시설개선, 안정된 연구환경 조성과 특성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교육과 연구활동

을 위한 행정시스템의 운영,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책무 수행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10대 중점과제로 우수학생 유치와 취업강화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할 행정과 홍보기능 강화, 연구지원 제도 정비 및 지원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위상 제고, 산학협동 기능의 강화, 적극적이고 다양한 건실한 재정확충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확충, 최상위 수준으로 복지혜택 향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등을 제안했다.



수의대 새해부터 경사가 '줄줄이'

국가고시 5년 연속 100% 합격
교육부 지원금 3억 5천만원 확정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개관

모교 수의과대학(이하 수의대)에서 '국가시험 5년 연속 전원합격'과 '학교기업지원사업 선정', '실험동물연구센터 개관' 등 호재가 겹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수의대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달 13일 치러진 '제50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졸업예정자 전원이 시험에 합격하며 5년 연속 전원합격이라는 명예를 안게 됐다.

또한 올해 시험에 응시한 김수경(수의학과·4) 학우가 전국 수석합격을 차지하며 다시 한 번 전국에 모교 수의과대학의 우수함을 알렸다.

올해 전국 수석합격을 차지한 김수경 학우는 "졸업논문과 국가시험을 함께 준비하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수상소감을 밝히고 "지금 당장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나중에 결과가 따를 것"이라며 후배들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9일 모교 수의대 부설 기관인 동물의료센터는 전국의 10개 대학의 수의학과 부속동물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제2기 '학교기업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로 인해 올해 모교 동물의료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억 5천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 20일에는 모교 수의대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가 개관식을 가졌다. 1999년 전국 국립대학 최초로 GLP 사업이 확정되어 착공에 들어간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는 현재 2000여 마리의 각종 실험동물 사육관리와 50여건의 동물실험 연구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바이오산업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수의과대학 강종구 학장은 "수의대들 중 가장 늦게 만들어진 모교 수의대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바탕에는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수들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충북대의 브랜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BK사업에 9개 사업단(팀) 선정

교육인적자원부가 "분야별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시행하는 「2단계 BK21」 사업에 모교에서 16개 사업단(팀)이 신청해 BK21 정보기술사업단(사업단장 전전겸 김영석 교수) 외 8개 사업단(팀)이 선정되어 향후 7년간 38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전국의 92개 대학에서 신청했으며, 우리 대학은 전국 대학 중 15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모교는 2단계 BK21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2004년 말부터 3회에 걸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발전기획단 위원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오류 내용을 교정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 왔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등)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난해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것이 가점으로 작용하여 이번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7년간 2조 3백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모교에서 선정된 사업단(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제2단계 BK사업 선정 현황〉

지원분야	사업단(팀)명	사업단장	국고지원금 1차년도(천원)	
지역우수대학원 (기초과학)	물리	차세대 소자개발을 위한 물리기반 인력양성사업단	유성초	451,700
지역우수대학원 (응용과학)	정보 기술	BK21충북정보기술 사업단 (충북대학교 정보기술사업단)	김영석	1,695,400
		바이오농업기술실용화 사업단	백기엽	859,200
	생명	바이오토피아 차세대 약학 기술 사업단	김영수	614,000
		동물의료 생명과학 사업단	정의배	535,200
지역우수대학원 (학제간 융합)	환경	자원순환형 환경도시 기술개발 사업단	이상일	408,000
지역우수대학원 (인문사회)	사회	심리서비스 전문인력양성 사업단	정진경	297,600
지역우수대학원 (핵심)	사회	생명윤리 및 안전법제 연구 사업팀	김수갑	110,400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시스템 연구 개발 사업팀	조완섭	120,000
총합계	9개 사업단(팀)			5,091,500

TI사업단 '우수사업단'선정 및 '우수상'수상

모교 TI(Trade Incubator)사업단(사업단장 국제경영·정보시스템학부 임달호 교수)의 4기(대표 이재호·박용진, 국제경영4), 5기(대표 강성모·주현규, 국제경영3)의 'La Luz Trade' 팀도 '제4회 전국대학생 해외마케팅전략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겹경사를 맞았다.

4기 TI사업단은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됐는데 전국 25개 대학의 TI사업단을 대상으로 대학지원, 사업단업무수행, 사업단관리 등 3개 부문을 외부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평가한 결과 모교를 포함 7개 대학의 TI사업단이 선정됐다.

또한 5기 TI사업단의 'La Luz Trade' 팀(이화성·김성미, 국제경영2), (손철규·홍미현·정수경, 국제경영3)은 '스페인 바라하스 공항을 공략하라!' 라는 주제로 '태양열 접열등'이라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가지고 스페인 마드리드주의 바라하스 공항 입찰에 참여하는 마케팅전략을 구상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국제경영학 수업을 통

해 배운 내용과 TI사업단에서 경험한 무역실무를 현실화시킨 우수한 해외마케팅전략이라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인 한국경제신문사 사장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모교 TI사업단은 산업자원부 지정,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하나의 국책사업단으로 무역전문인력의 조기양성과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의학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의학정보센터(센터장 이영성 교수)가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경주현대호텔에서 이루어진 '2005년 전국 전염병관리사업 종합평가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의학정보센터는 국민에게 어려운 의학정보를 알기 쉽게 대중화하여 보급하는 의학정보 콘텐츠 개발 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

으로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손씻기, 조류독감, 사스,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가을철발열성질환 등과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전국적으로 배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국가 전염병관리사업에 헌신적으로 협력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과 기관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해 왔으며, 의학정보센터 홈페이지(www.medic.co.kr)의 우측 배너를 통해 그동안 개발한 다양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



발전후원회 이사회 개최

모교 '발전후원회 이사회'가 지난 3월 28일 본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회의는 홍재형 후원회장을 비롯해 김주섭 수석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05년도 발전후원회 후원금 결산(안) 및 감사보고, 2005년도 발전후원금 용도배정 및

이관(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충북대학교발전 후원회'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지원사업, 학술 및 연구활동지원사업,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확충사업 등을 지원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학발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1월 창립됐다.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 5.33 대 1

모교가 지난해 12월 28일 2006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5.3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원서접수는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하여 5일 동안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모집인원 2,456명에 13,084명이 지원했으며 군별로는 '가'군이 1,567명 모집에 7,225명이 지원하여 4.61 대 1을 기록했고 '나'군이 889명 모집에 5,859명이 지원, 6.5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군)는 '가'군은 약학· 제약학과군으로 11.22 대 1을 기록했고 '나'군은 산림과학· 지역건설공학부로 29명 모집에 363명이 지원하여 12.52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으며 예년보다 농업생명환경대학의 경쟁률이 높아진 추세이다.

편입학 경쟁률 3.82 대 1

모교가 2006학년도 편입학생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444명 모집에 모두 1천 696명이 지원 3.8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편입은 269명 모집에 1천 320명이 지원해 4.9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학사편입은 175명 모집에 376명이 지원해 2.15 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일반편입의 경우 국어교육과가 20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학사편입에선 영어교육과가 2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범대학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정보통신공학과 여명호·민영수 팀 '삼성 휴먼테크 논문대상'에서 은상 수상

모교 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여명호(석사과정)·민영수(박사과정 수료) 팀(지도교수 유재수)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삼성생명 1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삼성 휴먼테크 논문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은상을 수상했다.

이 팀은 '캐시를 고려한 주기억 장치 상주형 다차원 색인구조'라는 주제로 응모한 논문이 은상에 선정돼 상금 500만원과 삼성전자 입사 특전이 주어지며, 이 외에도 상위 학위과정 진학 시 장학금 지원, 삼성전자 해외 사업장 견학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지도교수에겐

수상 당해연도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용이 지원된다.

'삼성 휴먼테크 논문대상'은 삼성전자가 미래 과학한국을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대학가의 연구 분위기 활성화와 기술 중시의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1994년에 제정한 상으로 이번 대회에는 총 800여 편의 논문이 응모되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90여 편의 논문이 선정됐으며, 대학원 부문에서 금상 6편, 은상 12편, 동상 16편, 장려상 12편의 당선작이 선정됐다.



법인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모교 발전기금재단이 2월 23일 본부 8층 회의실에서 '2006학년도 제1학기 법인장학생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 을 가졌다.

이 행사는 김유례, 신언임, 최공섭·전정숙, 임순득 등 교육독지가가 장학생에 대하여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함으로써 장학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의욕을 북돋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장학금은 부속중고 장학생 4명, 김유례 장학생 4명, 신언임 장학생 7명, 최공섭·전정숙 장학생 4명, 임순득 장학생 5명, 양미숙 장학생 1명, 여석대지 장학생 1명, 박정섭 장학생 1명 등 총 27명에게 4천 313만원이 지급됐다.



한정호 교수 해왕성급 외계행성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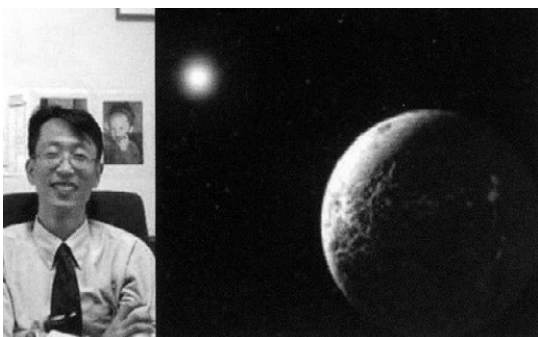
물리학과 한정호 교수와 한국천문연구원 박병곤 박사, 오하이오주립대 안덕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중력렌즈' 방법을 활용, 지금까지 발견된 170여 개의 외계행성 가운데 질량이 네 번째로 적은 해왕성급 외계 행성을 발견해 관련 논문을 천문학분야 최고 권위지인 『천체물리학회지』에 제출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밝혔다.

중력렌즈 현상은 별을 관측하는 도중 두 개의 천체가 관측자의 시선방향에 겹쳐 놓이게 되는 경우, 앞에 놓인 별의 중력 때문에 뒤의 별에서 나오는 빛이 휘어져 관측자에게 전달되는 현상으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행성 발견은 대부분 빛의 파장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존해 왔지만 이 방법은 질량이 크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행성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중력렌즈 방법은 먼 거리 행성이나 지구와 질량이 비슷한 행성 발견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연구진이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2.4m MDM 망원경을 통해 발견한 이 행성은 태양계로부터 2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태양 질량의 0.45배 정도 되는 중성별로부터 지구-태양 거리의 약 2.5배 정도 떨어져 공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 성과는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중력렌즈 방법을 이용해 목성급 외계행성을 찾아낸 우리 연구진의 두 번째 성과다.



생활관 민간투자(BTL) 사업 협약식 및 기공식 개최

모교는 도내 국립대학 생활관 민간투자(BTL) 사업통합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석현 충북대 사무국장이 449억원 규모의 생활관 신축사업의 시행사를 '늘푸른캠퍼스'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생활관 민간투자사업협약식 및 기공식' 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생활관 민간투자(BTL) 방식에 의한 이 사업은 충북 대학을 비롯한 한국교원대, 청주교육대 등 도내 3개 국립대학교의 생활관 신축공사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식의 평가와 선정된 시공사와의 협상을 거쳐 작년 9월부터 시작, 6개월여 만에 확정됐다.

이 사업은 2005년 2월부터 시작한 전국 국립대학교

생활관 민간투자사업에서 우리 충북지역이 가장먼저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늦어지고 있는 타 시도 BTL 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며,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직접 축전을 보내 충북권의 생활관 BTL사업의 협약식 및 기공식을 축하했다.

한편 2008년 2월 말에 이 사업이 완공될 경우 3월부터 입사할 수 있는 학생 수용율은 현재 약 8%에서 약 20%로 상향되어 학생복지 및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행사로 선정된 '늘푸른캠퍼스'는 생활관 시공과 함께 앞으로 20년 간 관리 및 운영을 맡게 되며 이후엔 운영권이 각 대학으로 이관된다.

200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8월 24(목) 오전 11시 학내 개신문화관 대강당에서 '200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389명, 석사 264명(일반대학원 98명, 교육대학원 26명, 행정대학원 26명, 경영대학원 38명, 산업대학원 57명, 법무대학원 19명), 박사 58명, 명예경영학박사(주성대학 정상길 학장) 1명 등 총 711명을 배출했다.

이번 졸업식은 학사 및 특수 대학원 석사는 단과대학

별 행사로 개최되었으며, 일반대학원 석·박사(명예박사 포함)는 개신문화관 대강당에서 총장 주관하에 전체 행사로 개최됐다.



미국 아이다호 주립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모교는 지난 8월 29일 미국 아이다호 주립대학과 교류를 확립하고자 김경석 기획처장이 미국에 직접 방문하여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날 양 대학은 교수 그리고또는 직원의 교류, 학생들의 교류 공동 연구 활동, 출판 세미나 및 학술회의 참석, 학술적 성과물과 기타 정보의 교환, 단기 특별 학술 프로그램 등 양 대학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게 하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한 학술정보 교환에 합의했다. 이 학

술교류를 통해 미주 지역 대학과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및 도내 기관과의 국제교류 협력 방안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기대된다.



농대 이재홍 학생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 수상



농업생명환경대 이재홍 학생(식품공학과 4년)이 지난 1월 23일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 학업성적 우수자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은 우리나라가 지식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다양한분야의 인재육성이 요구됨에 따라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대통령이 직접 격려하는 행사

로 이재홍 학생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발한 교내활동 및 봉사활동에 있어 모범을 보이는 등 건장한 정신과 우수한 학문적 능력을 가진 훌륭한 인재로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수여한 것이다.

시상식은 2월 14일 정부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있었으며, 같은 날 1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한 후 금강산으로 2박 3일간 연수를 떠났다.

의대 하태선 교수 세계인명사전 등재



충북대병원 소아과 하태선 교수(45)가 당뇨병성 신병증에서 단백뇨의 기전과 알레르기성 자반증에 대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가운데 하나인 미국인명연구소에 선정돼 '2006년도 21세기의 위대한 지성'에 등재됐다. 하 교수는 이미 세계 3대 인명사전인

영국 케임브리지의 국제인명센터와 미국 마르퀴스 후즈후의 2006 In The World에 등재된 데 이어 올해도 AB에 등재되어 올 한 해 동안 3대 세계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되는 업적을 올렸다. 하 교수는 현재 대한소아신장학회 회원 및 간행위원, 대한신장학회 회원, 미국 유럽 신장학회 회원, 국제-아시아 소아신장학회 회원, 충북의대학술지 편집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 269-6374)

약학대학 개교 50주년 기념식 개최

약학대학(학장 정연복 교수)이 9월 22일 개신문화관에서 '전통과 명예의 50년, 세계로 미래로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교 50주년 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50년간 구축해온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바이오 혁신클러스터를 구축, 세계적인 바이오메카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함과 동시에 차세대 약학기술 육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BT산업이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하루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약학대학 백년대계를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약학대는 1956년 4월 23일 국립약대 중에서 3번째로 설립, 동년 5월 16일 약학과 학생 40명이 처음으로 입학했다. 이후 1979년 약학대학 약학과로 승격되면서 입학 정원이 50명으로 늘어났으며 91년 3월 1일에는 제약학과가 신설되어 정원이 약학과 25명 제약학과 25명으로 조정되었고 2006년 9월 현재까지 약학과 학사

1907명, 석사 352명, 박사 64명이 배출됐다.

지난 1997년 약학계열 학문분야평가 최우수 약대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6년 BK21 2단계 사업에서도 지방약대 중 유일하게 대형 과제에 선정됐다.

한편 22일에는 재학생들의 장기자랑 등 약학축제가 벌어졌고 23일에는 졸업생들이 연자로 구성된 학술대회가 개최돼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운동장 현대화

모교는 국민체육공단이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시행하는 '2006년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3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 사업은 전국의 약 300여개 초·중·고·대학·지자체에서 신청하였으며, 모교는 본 사업의 유치를 위해 대학본부(임동철 총장과 김석현 사무국장 외)와 본교 체육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타 기관과 차별화된 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하는 등의 치밀한 준비를 한 결과 선정의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모교 발전후원회장이 홍재형 국회의원과 우리 지역 강혜숙 의원의 아낌없는 지원도 이번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내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본 사업은 인조잔디축구장, 우레탄트랙, 인라인롤러트랙 등 최상의 시설을 갖추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중심이 되는 대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전국적으로도 명실상부한 최고의 운동장시설이 될 것으로 확신된다.



정범모 초대 총장 발전기금 1억 기탁



모교 초대 총장을 역임한 정범모 전 총장이 학교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지난 9월 5일 1억원을 기탁하였다. 정 초대 총장의 발전기금 기탁은 1978년과 1991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였던 정 초대총장은 모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제1대 총장으로 부임하여 현재의 충북대학교로 성장하는 초석을 다졌다. 총장 재임 시 대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던 정 초대총장은 "총장으로서 이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낭만은 있되 광기는 없는, 정열은 있되 격양은 없는 유레카의 융성한 학구의 고장으로 만드는 것이 큰 꿈"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대쪽 같은 선비로, 멋진 신사로, 기억되는 정 초대총장은 학생들에게 '개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켰고, 이는 지금까지도 모교를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현재 팔순의 나이에도 학문에 힘쓰는 정 초대 총장은 한림대학교 석좌교수이기도 하다. 정 초대 총장은 기탁한 발전기금의 사용처를 대학 측에 일임하였으며 모교는 그 높은 뜻을 받들어 후학들의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회비납부자 명단

* 2006. 4. 1 ~ 2006. 12. 10일까지

◎ 회장 : 500만원
김주섭(토목 70)

◎ 부 회장 (50만원)

박재관(농학69), 김상필(토목70), 양재욱(약학70), 유인호(영어70), 임상화(약학70), 신계종(토목71), 김영분(국어72), 김종훈(축산72), 김흥식(국어72), 안재경(약학72), 조재순(가정72), 박노균(국어73), 김명수(체육73), 이경표(농경73), 하수용(토목73), 한창동(농학73), 손세원(토목74), 송석철(토목74), 정광용(농학74), 채명륜(공업74), 허백(토목74), 박재훈(농학75), 변재경(체육75), 이명원(토목76), 박경록(농경77), 엄태영(화학77), 이왕영(원예78), 임병덕(역사78), 정인철(토목78), 김현택(토목79), 김황호(건축79), 성석제(경영79), 송태영(행정79), 유운기(행정79), 윤진환(물리79), 장덕수(농기계79), 조천희(토목79), 박종서(토목80), 이면재(약학80), 황영호(행정80), 김사석(체육81), 김우성(법학81), 신민철(토목81), 신동엽(무역82), 장윤식(식품82), 최석근(토목82), 황재봉(농학82), 이상수(원예83), 권광택(경정00), 연광석(대학원), 김진원(교육대학원), 채성석(경영대학원), 이풍희(산업대학원), 정내현(산업대학원), 김민호(산업대학원), 김종복(산업대학원), 한상관(산업대학원), 김종록(법무대학원)

◎ 상임이사(20만원)

김현필(체육69), 한동환(수교70), 조승영(토목73), 김덕구(토목74), 황상규(농화76), 안재형(전기77), 이상태(연초77), 김길해(농생물79), 신은철(토목79), 김진상(토목79), 김선영(법학80), 박세종(경영81), 유흥열(토목81), 윤일로(토목81), 이기수(미술81), 김기동(생물82), 신현규(경제82), 이봉직(토목82), 이우호(토목82), 황운서(경제82), 강성화(전기83), 신홍섭(경영84), 유상용(약학86), 김영주(전기91), 유용철(회계91), 박용현(산업대학원), 연영민(산업대학원)

◎ 평생회비(10만원)

신영철(농학63), 김창범(체육69), 임상화(약학70), 김익균(과학72), 이현규(농경75), 박재승(국어76), 송준호(전기76), 나명찬(행정77), 윤홍섭(영어78), 이재권(사교78), 유환수(약학79), 이종영(재료79), 김만환(행정79), 김황호(건축79), 강세원(무역79), 이면재(약학80), 김영욱(경영80), 김기동(생물82), 유정우(철학83), 김연숙(윤리85), 유상용(약학86), 엄정식(무역86), 맹승진(농공86), 이정희(농화86), 이석희(기계86), 권순동(경영87), 김미혜(수학88), 황방연(약학88), 홍기남(토목89), 최진현(정의90), 김영주(전기91), 권광택(경정00), 유성훈(산업대학원), 한상관(산업대학원), 이항래(경영대학원), 김영권(행정대학원), 박석순(행정대학원)

◎ 년회비(2만원)

김보흠(행정87)

동 문 단 상

베르겐과 융프라우요흐에 이르는 길

- 2006년 여름 유럽 철도여행 체험기 -



박 노 균
(국어교육 73)

2006년 여름 빠리는 매우 더웠다. 거의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는 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을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동안 여름에 유럽을 여행하게 되면 보통 긴 바지에 반팔 셔츠, 그 위에 얇은 점퍼 차림이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전과 다른 차림으로 프랑스에 도착한 우리는 점퍼를 벗어 들고도 더위 때문에 냉방이 되는 곳을 찾아다녀야 했다. 이 무더위가 우리를 하여금 서둘러 빠리를 탈출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처음에 여행지로 선택한 곳은 유럽의 중심도시 프랑스의 빠리, 피요르드 해안으로 유명한 노르웨이의 베르겐,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스위스의 알프스 산지,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도시인 스트라스부르와 프라이부르크, 그리고 프랑스 남서부 첨단산업도시 툴루즈였다. 그런데 막상 유럽 철도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프랑스 전체가 더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북구의 노르웨이와 유럽의 지붕격인 알프스를 여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 두 지역에는 10여 년 전에 찾아가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말아야 했던 곳,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가고 싶은 곳, 베르겐과 융프라우요흐가 있었다.

노르웨이로 출발하던 첫날부터 우리의 계획은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다. 두 차례의 유럽 철도여행으로 자신감에 차 있었던 우리는 빠리 북역에 도착하여 쾰른행 국제 열차를 기다렸다. 더위와 관광객들에 시달리며 지루하게 기다리고 난 뒤 열차에 오르려고 했을 때 그때야 우리는 쾰른행 탈리스 열차가 예약을 필수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둘러 창구로 다시 돌아와 예약을 하려고 했으나 줄지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겨우 예매를 마치고 보니 우리가 타고 갈 열차는 또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대합실과 카페, 그리고 식당을 오고가면서 우리가 그날 북역에서 기다린 시간은 모두 한나절 정도는 되었을 것 같다. 다시 지루한 몇 시간을 보낸 끝에 열차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을 때 비로소 이번 여행을 위해 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였다. 그러나 이미 앞질러진 물이 되고 만 것을 어찌겠는가! 그나마 우리가 탄 열차의 시설과 서비스가 기다리면서 그동안 느꼈던 고통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어 다행이었다.

열차가 독일 쾰른역에 도착하였을 때 어둠이 이미 짙어가고 있었다. 서둘러 코펜하겐행 열차를 예약하기 위하여 창구를 찾아갔지만 막 문을 닫고 있었다. 참으로 난감하였다. 열차시간표를 이리저리 뒤적거리 보니 그 늦은 시각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열차로는 스위스 바젤행만 남아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여행 목적지를 노르웨이에서 스위스로 바꾸기로 하고 바젤행 열차 승강장을 찾아가고 있을 때 한 통로에서 우리는 마치 내가 존경하던 중학교 은사님의 여동생과도 같아 보이는 풍채 좋고 목소리 또한 낭랑한 한국인 청년 아주머니를 만났다. 이국의 기차역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한국인을 만나게 되어 반기웠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였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

은 역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 후 이 밤중에 어디를 찾아가고 있느냐고 친절하게 물어왔다. 그 아주머니에게 난처하게 된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어쨌든 코펜하겐행 열차가 출발하는 곳까지 함께 가 보자고 제안했다. 열차가 아직 출발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차량 출입구가 승객들로 매우 혼잡하였다. 아주머니가 승무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타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 좌석 칸은 이용해도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아주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되풀이한 후에 서둘러 열차에 올라가 빈 좌석에 앉아서 그제야 숨을 돌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간신히 올라타게 된 코펜하겐행 야간 열차에서 내 생애 가장 긴 밤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단지 처음의 목적지로 계속 여행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였다.

쾰른역을 출발한 열차가 서는 역마다 사람들이 올라와 자신들이 예약한 좌석을 찾았고 그때마다 그곳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른 자리를 찾아 나갔다. 우리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어느 역에서부터인가, 그동안 편하게 왔던 좌석을 예약자들에게 내 주고 빈 자리를 다시 찾아보았지만 이미 좌석은 없었다. 우리는 통로에 띄엄띄엄 설치되어 있는 보조의자 위에 앉기도 하고 그 옆에서 있기도 하면서 얼마간은 그런 대로 여행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두세 시간쯤을 견디고 나니 발바닥과 다리, 허리가 아파 오기 시작하였고 그런 가운데서도 졸음은 엄습해 왔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여행을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었다. 오밤중에 열차에서 내린다고 별다른 수가 있을 수 없었다. 이미 호텔 문들이 모두 닫혀 있을 시각이어서 만약 열차를 내리게 되면 역 대합실 구내에서 남은 밤을 보내야만 했다. 후회 막판이었다. 쾰른역에서 서둘러 열차를 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내릴 수 없는 불쌍한 처지에 놓였던 것이다. 아이들과 아내는 나의 준비 부족을 원망하다가 첫째는 보조의자에 앉고 나머지는 그 옆에 기대어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처량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기가 민망하였다.

역시 아내는 용감하였다. 아이들 옆에서 졸다 깬 아내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듯 이곳저곳을 뒤진 끝에 빈 좌석 하나를 찾아내어 둘째 아이를 앉혀 놓고 돌아왔다. 다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과 첫째 아이의 좌석도 잡아서 함께 들어가고 나만 혼자 보조의자에 걸터앉아 시간이 늦게 흐르는 것만 야속해 하고 있었다. 다시 얼마를 더 지난 후 아내는 나도 자기 옆 빈 좌석으로 불러들였다. 그동안 다른 곳에 가 있어서 궁금해 했던 둘째 아이도 불러다 놓은 뒤였다. 이산가족이 한 자리에 상봉하게 된 격이었다. 아내 덕분에 우리는 코펜하겐역까지 자리에 앉아서 가게 되었다. 열차가 종점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이국 땅 덴마크에 내리는 새벽 비는 여행 첫날밤 우리들의 우울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날 비에 젖은 코펜하겐의 아침 풍경은 오랫동안 잊혀 지지 않

을 것 같다. 코펜하겐역에서 아침 겸 점심 식사를 마친 우리는 스웨덴의 예테보리행 열차에 다시 몸을 실었다. 여기에서도 시행착오는 계속되었다. 예약이 필요 없는 열차로 되어 있었기에 1등 칸 빈 좌석에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그 또한 문제였다. 열차가 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올라왔고 얼마를 더 가지 못하여 우리는 또다시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둘째 아이와 첫째 아이의 성토와 아내의 불평이 꼬리를 물었다. 좌석 없이 하는 장거리 기차 여행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이미 체험한 우리는 다음 역에서 내려 버렸다. 엔젤홀름이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다. 빗속에 호텔을 찾아 들어가 하룻밤을 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열차를 타고 점심때쯤 되어서 예테보리역에 도착하였다. 이태리식 점심식사를 즐긴 우리는 오슬로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열차의 출발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승강장 번호가 나타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 알고 보니 우리가 기다리는 열차는 예테보리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역까지는 버스가 연결해 주고 있었다. 하마터면 또다시 열차를 놓치고 고생할 뻔하였다. 연결 버스는 안락하였고 승무원들도 매우 친절하였다. 어느 시골 역에서 열차로 갈아타고 가던 우리는 오슬로 역이 가까워오면서 다시 불안해 지기 시작하였다. 오래 전 오슬로역에서의 악몽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1987년 여름 유레일패스로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스톡홀름을 차례로 구경한 아내와 나는 어느 날 밤 오슬로역에 도착하게 되었다. 늦은 시각이라 서둘러 역 구내에 있는 안내 창구를 찾아가서 호텔을 알아보았을 때 우리의 예상이 크게 빗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시내의 호텔들은 이미 모두 만원이고 비싼 호텔만 남아 있다는 얘기였다. 호텔 비용을 아끼느라 야간 열차를 자주 이용하던 우리에게 비싼 호텔에 들어갈 만한 여유는 없었다. 아내가 그냥 돌아가자고 했다. 마침 코펜하겐행 열차가 바로 있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돌아서고 말았다. 목적지 베르겐을 눈앞에 두고 하룻밤 호텔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먼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안타까웠다. 그날 이후 오슬로는 나의 뇌리에 호텔 요금에 비싼 도시로 각인되어 버렸다.

이번에는 꼭 베르겐까지 다녀오야 말겠다고 단단히 버리고 노르웨이를 찾아가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오슬로역이 가까워오며 따라 그 때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다. 오슬로 가까이 있는 스키역에 내려서 호텔을 잡고 싶었다. 그러나 만약 그 마을에 호텔이 없다면 어쩔 것인가? 다음 열차를 타고 오슬로역에 도착하게 되면 그 때는 시간이 더 늦어져서 호텔 잡기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였다.

고민을 하는 사이에 무심한 열차는 어둠이 내리는 대도시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잠시 후에 오슬로 중앙역에 도착하였다. 역사를 서둘러 빠져나온 우리는 값이 조금 덜 비쌀 것 같아 보이는 호텔 하나를 찾아내

었다. 마침 가족용방이 있어서 요금을 물어보았다. 종업원이 적어 준 계산서에 거액이 적혀 있어서 깜짝 놀랐다. 곧 노르웨이 크로네로 계산한 것임을 알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기는 했지만 유로로 환산하더라도 상당히 비싼 요금이었다. 역시 오슬로의 호텔 요금은 비쌌다. 그렇지만 이번에 또 베르젠을 구경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곳에서 또다시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면 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다시 올 수 있지 몰랐다. 다른 비용을 줄이기로 하고 피로에 지친 우리는 그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다. 이것이 19년 전 비싼 호텔 요금에 놀라 역 구내에서 아쉽게 돌아섰다가 50대 중반기에 접어들어 다시 찾아온 한국 중산층 어느 가정의 노르웨이 여행 현주소였다.

이튿날 우리는 오슬로 시내 관광 티켓을 구입하여 조각공원, 입센기념관, 프람호박물관, 콘티키호박물관, 해양박물관, 스키박물관을 차례로 구경하였다. 시내 구경을 하느라고 지친 우리는 그날 밤 제법 비싼 침대 열차에 몸을 다시 싣고 오슬로를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에 드디어 베르젠역에 도착하였다. 그것이 아마 중학교 시절이었단가? 피요르드 해안에 대하여 공부할 때 그 이름을 처음 듣고 언젠가 한번 가 보고 싶었던 북구의 도시, 백야의 땅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서쪽 끝 피요르드 관광의 거점 도시가 거기에 있었다. 4박 5일 동안 2,400여km,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6,000리가 넘는 멀고도 고달픈 기차 여행 끝에 겨우 도착한 항구도시였다. 베르젠은 이제까지 내가 밟아 본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컸다.

우리는 4시간짜리 피요르드 해안 유람선을 탔다. 크지 않은 유람선에는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동양계로는 우리뿐이었다. 육지로 깊숙하게 들어간 좁은 바다를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였는데 뱃머리로부터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일품이었다. 그리고 바닷가에 군데군데 들어서 있는 별장 같은 집들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우리의 피요르드 해안 유람선은 그동안 내가 꿈꾸어 왔던 장관은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다도해 해안이나 충주호 계곡을 몇 배 확대해 놓은 것과 같이 보일 뿐이었다. 이제 돌아가야 할 길이 너무도 아득하게 느껴져서 베르젠 관광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말았다. 야간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도시를 하나 더 구경하기 위하여 우리는 열차를 타고 베르젠 동쪽 100여km 내륙에 있는 보스역에서 내렸다. 마을 남쪽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의 북쪽 사면에 만년설이 군데군데 남아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 내려오는 한적한 호숫가 마을이었다. 호수가 산자락 이곳저곳에 예쁜 집들이 아름다운 전형적인 전원 마을이었다.

덴마크의 오펜세역에 내려서 하룻밤을 묵은 후 이튿날 안데르센기념관을 관람하였다. 이번 유럽 여행에서 나는 작가기념관들을 주로 찾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안데르센기념관이 규모도 크고 자료도 방대하였다. 기념관 정원 한 쪽에 설치되어 있는 조그만 세트장에서 구경한 안데르센 동화의 시범 공연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다.

베르젠을 찾아가는 동안에 겪었던 고통스러움에 비할 때 돌아오는 길은 매우 순조로운 편이었다. 우리가 탈 수 있는 1등칸에는 항상 자리가 남아 있었고, 좌석 예약만 미리 해 놓으면 남에게 쫓겨날 염려가 없다는 사실도 늦게서야 터득하게 되었다. 노르웨이의 보스역과 오슬로역, 그리고 스웨덴의 예테보리역에서는 좌석만 예약하였고, 독일 함부르크역에서는 침대 열차를 예약하여 곡절도 많았던 7박 8일간의 북구 여행을 비교적 편안하게 마감하면서 빠리로 돌아왔다.

노르망디의 주도인 루앙으로 돌아온 우리는 이튿날 오후에 알프스 지방으로 다시 여행을 떠났다. 강행군

이었지만 프랑스가 아직도 더위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벗어나고 싶었다. 우리는 빠리 동역에서 고속 열차 떼제베를 타고 몇 시간 만에 스위스로 잔느에 도착하였고, 로잔느역에서 베르헨 기차를 타고 출발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주위를 덮어버린 뒤라서 창밖 멀리에는 이따금 불빛만 깜빡거릴 뿐이었다.

이번 알프스 여행의 주 목적지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관광지 융프라우요흐였다. 융프라우요흐 또한 우리에게 사연이 있는 곳이었다. 1993년 8월 초순경 우리 가족은 '유럽 일류 휴양지'로 알려진 인터라켄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이튿날 아침 융프라우요흐에 오르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날 아침 융프라우요흐행 등산전차가 이미 출발한 뒤라서 그곳에 오르려면 하루를 더 기다려야 했다. 같은 도시에서 하루를 더 묵는다는 것은 당시 우리의 경제 사정으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관광대국 스위스의 호텔 요금이 상당히 비쌌을 뿐만 아니라 등산전차 요금 또한 만만치 않은 편이어서 대가족인 우리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융프라우요흐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옆 골짜기에 있는 뮌헨 마을로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쉴트호른 봉우리에 오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밤늦게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 도착한 덕분에 우리는 제법 비싼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다음 이튿날 아침 열차로 인터라켄 동역에 도착하였다. 옛날에 우리가 찾아갔을 때와는 달리 융프라우요흐에 오르는 등산전차는 자주 있었다. 골짜기 마을인 라우터부룬덴에서부터 전차가 본격적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아래로 펼쳐지는 골짜기와 마을의 풍경은 우리가 가끔 보아오던 스위스 풍경 사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규모 또한 대단하였다. 조금 더 오르니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폭포수가 쿵쿵 소리를 내고 있었고 중간 역들 주위에 지어 놓은 멋진 호텔 건물들과 장가에 피어 있는 선홍빛 꽃들, 산비탈 목장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젖소들, 초원이나 바위 옆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 그리고 만년설로 뒤덮인 채 하늘로 치솟아 있는 우람한 산봉우리들이 계속 우리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다. 게다가 만년설 위를 뒤덮었다 사라지고 다시 피어오르는 거대한 구름덩이들도 알프스의 신비로움을 더해 주고 있었다.

아이저글레체역에서부터는 긴 빙하 터널로 되어 있었다.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 바로 종점인 융프라우요흐역이었다. 해발 3,454m에 위치하고 있는 이 역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으로 유명하다. 것처럼 높고 험한 산악 지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스위스 사람들이 쏟은 열정과 그들이 개발한 철도 기술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저리 이어지는 통로를 지나서 드디어 3,571m 고도를 자랑하는 전망대에 올라섰다. 노르웨이의 베르젠 해수면에서 며칠 만에 이번 여행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지점인 융프라우요흐 전망대에 올랐다는 것이다. 시인 이육사의 표현을 빌리면 나의 이번 여행은 '북방의 끝' 베르젠에서 '고원의 정점' 융프라우요흐에 이르는 길로 요약될 수 있다. 사방을 둘러보니 온통 바위 절벽과 만년설과 거대한 구름뿐이었다. 전망대를 휩싸고 지나가는 한 떼의 구름 덕분에 우리는 구름 위에 소요하는 신선 기분을 잠시나마 느끼게 되었다. 휘청거리려는 두 다리를 조심조심 떼어 놓으며 얼음 동굴 속을 이곳저곳 열심히 구경하였다. 이곳에 오르기 위하여 13년이나 기다렸다고 생각하니 한곳도 빼놓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의욕과는 달리 산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껴 오래 지 않아 하행 전차를 타고 말았다.

클라이네 사이데크역에서 내려 알프스 영봉들을 한 차례 더 감상한 후 등산전차를 타고 그린델발트 방향으로 내려갔다. 점점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린델발트

마을은 역시 알프스 최고의 전원 풍경이라고 자랑할 만했다. 그린델발트의 빼어난 경관에 취한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루 더 묵어 가자고 졸라서 몇 군데 호텔을 알아보았다. 예상한 대로 요금이 너무 비싸서 다음을 기약한 채 곧바로 프랑스의 여름 휴양지 샤킨으로 향하였다.

갈 길은 아직 먼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할 수 없이 스위스의 국경 마을 마르띠니에서 하룻밤을 더 묵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최고의 등산철도'로 알려져 있는 마르띠니 샤펠라르션을 운행하는 산악 열차를 타고 험준한 고갯길을 올라갔다. 국경 마을에서 열차를 갈아탄 우리가 샤킨 몽블랑역에 도착했을 때 한낮이 거의 되어 가고 있었다.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였다.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 관광의 출발지로 유명한 샤킨에서 하룻밤을 묵고 싶어서 호텔을 알아보니 마침 가족용 방이 있었다. 유명한 관광지인데도 요금이 스위스보다 저렴하여 더욱 마음에 들었다. 일찌감치 호텔을 정해 놓고 나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몽블랑 관광 코스는 몇 차례 다녀온 바 있기에 이번에는 빙하 계곡인 메르 드 글라스 코스를 선택하였다. 등산전차로 능선 위 몽팡베르까지 오르고 그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얼마쯤을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거대한 바위 절벽에 붙여 놓은 길을 따라 내려가서 빙하 속에 만들어 놓은 얼음 동굴을 구경하였다. 동굴 입구에서 올려다보니 바위 절벽에 비스듬하게 걸려 있는 길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다리가 아플 정도로 걸어 올라가서 케이블카 종점 옆에 있는 휴게소에 들어갔다. 페라스에 앉아 양쪽에 솟아 있는 거대한 산봉우리들과 그 사이에 멀리까지 이어져 있는 빙하 계곡을 바라보면서 자연 경관의 장대함을 실감하였다. 케이블카로 몽팡베르까지 다시 올라가서 등산전차를 타고 샤킨 마을로 내려왔다. 비록 융프라우요흐의 것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곳 등산 철로 역시 원리는 비슷하였다. 두 개의 레일 사이 한가운데에 톱니로 된 철로가 하나 더 있어서 비탈을 올라가더라도 전차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고정시켜 주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샤킨 마을을 떠난 우리는 부르제 호숫가의 온천 도시 엑스 레 뱅에 도착하였다. 우선 포르박물관을 찾아가 그 안에 있는 낭만주의 시인 리마르핀 기념실을 구경한 다음, 호숫가로 나가서 잘 가꾸어 놓은 가로수 터널을 따라 산책하였다. 엑스 레 뱅에서 하루를 더 묵은 다음, 이튿날 사부아의 옛 도시 상베리에 도착하여 도시 남쪽 끝에 있는 레 샤프메뜨를 찾았다. 17세기에 지어진 이 저택은 바랑 부인의 소유로 계몽 사상이 루소가 한동안 머문 바 있었던 곳이다. 뜨거운 햇볕 아래 먼 거리를 걸어 올라갔더니 마침 쉬는 날이어서 기념관 주위만 한 바퀴 둘러보았을 뿐이다. 그날 오후 우리는 빠리행 떼제베 열차를 타고 4박 5일간의 알프스 지방 여행을 마감하였다.

10여 일 간의 유럽 철도여행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옛날 찾아 나섰다가 도중에 돌아서야 했던 베르젠과 융프라우요흐에 다녀온 것은 가장 큰 수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곳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고달팠고 경제적인 부담 또한 컸다. 언제나 우리는 여유를 갖고 여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가계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10년쯤은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그 때 나는 이미 60대 중반의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행이 주는 매력과의 미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 요즘 GDP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삶의 질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도 수준 이하라는 것을 이번 유럽 철도여행을 하면서 실감하였다.

동 문 단 상

논술의 정의와 논술 연습



이 은 경
(국어국문 85, 평생교육원 강사)

1. 논술(論述)이란 무엇인가

1) 논술의 정의

〈문심조룡〉에 의하면 성인의 불변의 가르침을 ‘經’이라고 하고, 경의 哲理를 祖述 전개한 것을 ‘論’이라 하였다. ‘論’의 형식을 보면 ‘議’, ‘說’, ‘傳’, ‘注’, ‘贊’, ‘評’, ‘序’, ‘引’ 등 명칭을 달리하지만 일괄하여 ‘논’의 범주에 통합된다. ‘論’이라 한 것은 여러 말을 망라하여 하나의 도리로 정제하는 것이다. 도리는 말에 나타나고, 도리를 서술한 것이 論이 된다.

본인은 논술을 ‘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가장 원색적인 언어일 수 있지만, ‘똥’이란 것은 음식물을 섭취한 후 모든 소화과정을 마친 마지막 결정체이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잘 먹고 잘 누면 건강한 아이라고 한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독서와 생각을 정리한 후 마지막으로 내놓은 ‘똥’은 건강한 정신적 세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똥’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부분은 절대 글로 나타낼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또한 ‘똥’은 음식을 먹고 난 후 최소 2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만 한다. 글도 또한 내 것으로 인식하고 내 언어로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길고 긴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기 때부터 가족들의 대화를 통해, 동화책을 통해, 텔레비전을 통해, 체험학습을 통해,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내 안으로 들어온 많은 자료가 정리되고 사유화된 후 문자로 나타내는 것이 논술이다. 작은 문제도 넘기지 않고 문제화할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내놓는 과정을 말한다.

2) 논술을 시작하기 전에 나부터 알기: 연상훈련

각자 개인은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상을 통해 알아본다. 연상이란 관련 있는 것들을 정신세계에서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상훈련은 자신의 생각하는 힘과 사고의 깊이, 개인의 경험 세계, 현재의 관심거리 따위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① 무제한 연상 : 이 연상은 생각하는 힘과 사고의 깊이를 측정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편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 ㄱ. 5분 동안 머리 속에 떠오르는 낱말들을 적는다.
- ㄴ. 낱말적기가 끝나면 낱말의 수를 센다.
- ㄷ. 앞 낱말과 뒷 낱말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에 사선을 긋고 사선의 수를 센다.

낱말이 몇 개나 떠올랐고, 사선은 몇 개나 그어졌는가?

연상에서 떠오른 낱말의 수는 생각하는 힘의 차이를 나타낸다. 아무런 제약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상했을 때 머리 속에 떠오르는 낱말의 수는 순수

하게 그 사람의 힘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사선 안에 들어가는 낱말의 수는 사고의 단편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사선은 앞, 뒤 낱말이 연관성이 없는 경우 긋는 것이므로 사선은 한 사고가 다른 사고로 전이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 사선 안에 속한 낱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중적인 사고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보기1〉 밥/선배/시계, 각성/형, 동생, 부모님/장래, 여자/문화, 책, TV/친구

〈보기2〉 사랑, 만남, 즐거움, 시간, 커피, 샌드위치/눈, 입, 손, 손가락, 반지, 더티블루, 무쓰, 파란색 스웨터, 목걸이, 전화, 오빠네 엄마/펜, 수첩, 드뷔시산장, 블루마운틴, 네스카페, 레콜라

〈보기1〉에서는 한 사선 안에 들어가는 낱말의 수는 1.8개이다. 이는 하나의 생각 영역 안에 두 가지도 떠올리지 못한 채 생각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음을 나타낸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깊이 생각하면 그것과 관련된 연상이 많아지게 된다. 〈보기2〉는 23개의 낱말들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 샌드위치와 눈 사이, 오빠네 엄마와 펜 사이 직접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전체 낱말들로 볼 때 이들의 연계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처럼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경우 사고의 집중력에 큰 차이를 보인다. 생각하는 힘이 모자라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는 글을 통해 잘 드러난다. 글이란 생각을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밖으로 끌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깊이 있는 생각이 없다면 깊이 있는 글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낱말 제시 연상 : 특정한 낱말을 주고 그 낱말과 관련되어 생각나는 낱말들을 쓰게 하는 것이다.

- ㄱ. 다음 낱말들을 보고 생각나는 바를 적어 봅시다. (택 1) 동물 / 시험 / 과일 / 꽃 / 자동차 / 나무 / 음료수 / 채소
- ㄴ. 낱말적기가 끝나면 낱말의 수를 센다.
- ㄷ. 각자 떠올린 낱말이 주어진 낱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 구분해 본다. (속성, 비슷한 말, 반대말, 하위분류 등)
- ㄹ. 주어진 낱말과 연관관계가 없는 것에 사선을 긋는다.

이 훈련은 개인의 경험을 파악하게 한다. 연상의 근거는 정신이 경험을 연결시키는 능력이라고 한다.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는 과거 경험 세계에서 축적된 많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 주어진 낱말 소재들이 방아쇠 역할을 해서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있는 것 가운데 연관되는 것을 두드리면 그것들이 의식의 표면으로 튀어 오른다.

〈보기1〉 주어진 낱말 : 꽃
ㄱ. 열매, 장미, 생일, 향수, 키스
ㄴ. 진달래, 개나리, 장미꽃, 할미꽃, 호박꽃
〈보기1〉의 ㄴ에서 특별한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꽃의 구체적인 이름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생

각은 꽃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므로 상투적인 연상이다. 낱말 제시 연상 가운데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것이 독특한 경험에 바탕에 둔 것이라면 이는 아주 좋은 글감이 될 수 있다. 결국 모든 연상은 경험의 깊이만큼 뿌리내리고 경험이 뒷받침해 주는 만큼 가능하다.

2. 일기쓰기를 통한 논술 연습

1) 일기에 대한 일반적 이론

① 일기란 자신의 하루 생활에 있었던 일이나 생활을 기록한 글. 일기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적은 글.

② 일기의 중요성

* 훗날을 위한 기록
* 모든 일에 관찰력이 예리해지고, 감수성이 풍부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살피고 깊게 생각하게 된다.

* 반성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많은 어린이들이 일기를 쓸 때 반성문 형태의 일기를 쓰는데 꼭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잘한 일, 잘못된 일 등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반성할 수 있다.

* 글쓰기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일기쓰기는 문장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쓰기 때문에 활력적인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어린이가 글을 쓸 때 의식적으로 문장 이론에 입각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글 형식을 갖추어 쓰면 더더욱 글쓰기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③ 일기 쓰기에 관한 몇 가지 기초 상식

* 날씨 : 대부분의 일기장에 해, 바람, 구름, 비, 눈 등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곳에 동그라미 치는 형식으로 날씨를 나타내지만 이보다는 체계적이고 주제적인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따라 날씨는 달리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표현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시)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비 해가 났으나 바람은 옷 사이로 비집고 들어옴 흐린 날씨 속에 해가 수줍은 듯이 살짝살짝 고개를 내밀

* 제목 : 일기를 쓸 때 제목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학년의 경우 제목을 쓰지 않으면 핵심이 없는 글이 되기 쉬우므로 주제를 명확히 잡을 때까지는 제목을 잡는 것을 권한다.

* ‘오늘’, ‘나’의 문제 : 일기는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므로 ‘오늘’, ‘나’ 등은 쓰지 않은 것이 좋다. 매일매일 쓰거나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가 아니라 자연스런 문장에서 나온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어떠한 단어라도 2번 이상 반복된다는 것은 이미 어휘력의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매일 쓰는가 : 그렇다. 학교에 따라 주당 2회 - 4회 정도로 정해 주기도 하지만 일기 쓰는 습관은 매일 거르지 않는 것이 좋다. 일기장을 가지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친척집을 방문한다면 이면지를 이용한다든지 메일을 이용해서라도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누

군가에 의해 평가받는 일기를 쓸 때는 어린이들이 부담스러워하므로 매일매일 정식으로 쓰기보다는 글의 유형을 번갈아가며 쓰면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다.

* 한 가지 이야기만 쓴다 : 많은 어린이들의 일기를 보면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의 전개에 따라 나열형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글의 주제를 잡지 못하게 된다. 한 가지 이야기만 쓰라는 것은 곧 주제가 명확한 글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꼭 써야 할 이야기가 많다면 옴니버스식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2) 일기쓰기를 통한 논리적 관점 갖기

고인쇄 박물관을 견학한 적이 있다. 청주 흥덕사에서 발견된 세계 최초 활자본 '직지'의 위대함을 느낀 것뿐만 아니라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또한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의해 찍힌 채 발견된 금구에 '서원면 흥덕사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던 것이다. 만일 그 금구에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는 프랑스의 국립도서관 서고에 갇힌 고서에 불과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기는 작게는 나의 인생을, 크게는 세계사를 기록하는 습관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 '그 밖의 사람들'로 기록되는 부류의 삶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한 여인의 서간에, 한 선비의 문집에 쓰인 자신의 생각은 훗날 그 어떤 역사서보다 더 진실한 역사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일기의 의미는 글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기록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한다면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1) 경험을 통한 논리적 글쓰기 : 경험 소중한 여기기 개인 개인은 늘 소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지만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의 경험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글쓰기의 소중한 자료가 된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 작은 행동이나 사건들도 눈여겨보게 된다. 눈여겨보면 자신만의 사고가 열리고 그 사고는 글을 통해 투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의 기록은 냉장고에 음식재료를 쌓아두는 것처럼 내 두뇌와 가슴에 글쓰기 재료를 저장해 두는 것이다.

2) 시사적인 사건을 통한 글쓰기 : 내 주변 돌아보기 논술의 대다수 문제는 구체적인 사회문제를 예시로 들게 한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나 이외의 사람, 사건에 대해 관심이 적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논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논술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다.

3. 동화읽기를 통한 논술 연습

동화는 어린이만 읽는 것이 아니다. 같은 내용의 동화라 해도 나이에 따라, 사고의 깊이에 따라, 경험에 따라 다르게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화의 주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중심인물을 누구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적은 양의 동화도 논술에서는 좋은 재료로, 즉 좋은 논거로 작용할 수 있다.

1) 날권의 이해 : 2008년 논술고사의 핵심어는 '통합 논술'이다. 정서적인 글도 과학적으로 읽어야 하며, 과학적인 현상도 철학적, 사회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헨델과 그레텔'을 물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헨델이 주머니 속에 넣은 조각돌의 개수가 과연 몇 개나 될 것이며,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는 과연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가를 의문시할 수 있어야 한다.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과 대인국은 존재가능한지 '투명인간'이 존재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도 과학적으로 설명되기를 원한다.

2) 종합적 이해

날권의 독서를 끝낸 후 주제가 같은 종류의 책 (예- 걸리버 여행기, 닐스의 이상한 여행,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허크베리핀의 모험, 15소년 표류기 등 모험을 주제로 한 작품)을 모아서 읽고 정리한다거나 글감이 같은 작품을 모아서 읽음으로써 날권에서 놓칠 수 있었던 요소들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시 1. 전래동화 속의 등장인물을 통한 논리적 글쓰기

• 연습 방법 : ① 각자 소유하고 있는 전래동화를 한 곳에 모은다.

② 4절지에 물, 육지, 하늘 등 세 가지의 영역을 구분해 놓는다.

③ 각각의 책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 동물들만 모아 영역에 그림을 그린다. 예를 들어 <팔죽할멈과 호랑이>가 나오면 육지 영역에 호랑이를 그리고 다른 책에도 호랑이가 나오면 정자(正)로 표현한다.

④ 그 중 하나의 인물을 선택하여 등장하는 책을 다시 모은다.

⑤ 등장인물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한다.

<옛이야기 속에 나타난 구렁이의 선과 악의 모습>

아기 때부터 읽었던 전래동화는 초등학교가 된 지금도 자주 읽고 싶을 만큼 흥미롭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이무기, 구렁이 등 뱀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묶어서 읽어 보았다. <구렁이덩굴>, <보들이 뱀이 된 이야기>, <산삼과 이무기>는 뱀이 주인공이고, <흥부와 놀부>, <열두피가 생겨난 이야기>에는 보조 인물로 나온다. 그 밖에도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집에 있는 책만 살펴보았다.

왜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징그러운 뱀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가 농경민족이기 때문일 것이다. 곡식창고에 쥐가 들끓자 조상들은 쥐를 잡아먹는 뱀을 이용하여 곡식을 지켰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구렁이덩굴>에서 구렁이는 착하고 멋진 남자로 변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 <산삼과 이무기>에서는 산삼을 캐서 파는 갑이가 친구 울이와 동이에게 배반을 당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나타나 구해주는 신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이무기는 용이 되지 못한 구렁이로 우리나라 옛이야기 속에 많이 나오는 동물인데, 이 책에서는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욕심쟁이 울이와 동이에게는 뜨거운 입김을 쏘여 죽게 만드는 신적인 존재다. <열두 피가 생겨난 이야기>에서 뱀은 조심성 있는 인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보들이 뱀이 된 이야기>에서는 보들이 잘난 척하고 친구들은 무시해서 벌을 받게 되어 뱀으로 변한다. 친구들의 용서를 받지 못해 몸이 점점 길어지게 되어 보들에게 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뱀이 나쁜 인물로 나타난다. 온 몸에 새하얀 털이 보들보들 나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만 그것을 믿고 거만해진 동물이다. <흥부와 놀부>에도 구렁이가 나온다. 새끼 제비가 구렁이의 위협으로 다리를 다치게 된다. 그 새끼 제비가 흥부에게 행운을 갖다 주는 기회가 된다.

책을 날권으로 읽다가 같은 동물이 나오는 책을 골라 한꺼번에 읽으니 우리 옛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게 되었고, 더욱 더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구렁이와 쥐의 천적관계를 알고 곡식창고에 집을 마련해 준 슬기가 참 대단하다. 그런 슬기가 이야기 속에 배어 있는 것으로 구렁이를 바라보는 생각은 친절한 면과 그렇지 않은 면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나도 구렁이는 징그러우지만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왠지 정답기까지 했다.

나에게도 흥부의 행운이 구렁이로부터 올까?

위 글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독후감 숙제를 빨리 끝내려는 욕심으로 쉽고 간단한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도한 결과물이다. 학교에서 내 주는 독후감 숙제는 형식적인 틀, 즉 읽게 된 동기 - 줄거리 요약 - 본받을 점, 깨닫게 된 점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경우 집에 있는 책 중에서 같은 재료를 글감으로 사용한 책을 모아 보게 하였고, 그 재료가 각각 어떠한 양상으로 구현되었으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를 살피게 하였다. 그로 인해 공통 재료 즉 구렁이가 우리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찾는 성과를 얻게 된다.

4. 소설을 통한 논술 연습

1) 고소설

고소설의 창작방법 즉 적층적 이야기 구조는 오늘날 이야기 바뀌 쓰기 방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토끼전의 이본은 60여 가지가 되며, 특히 이야기 결말구조는 크게 여섯 가지로 토끼가 육지에 무사히 도착함으로써 별주부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하고 있다. 작가가 일정하지 않고, 독자도 기존의 스토리 구조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견해를 첨가하여 작품을 새롭게 즐겼다. 이러한 우리 고소설의 항유방식에서 착안하여 학생들에게 작품에 자신이 원하는 인물과 배경 등을 첨가 혹은 삭제함으로써 작품이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그 이상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시 1. 이야기 바꾸기를 통한 주제의 다양성 찾기와 글감의 활용

- 작품명 : 공쥐 팔쥐전
• 연습방법 : 공쥐팔쥐전을 정독하게 한 후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한다. 각 인물의 성격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게 한다.

	공쥐	팔쥐	팔쥐엄마
1.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2. 착하다	착하다	못됐다	못됐다
3. 착하다	못됐다	착하다	착하다
4. 착하다	못됐다	못됐다	못됐다
5. 못됐다	못됐다	못됐다	못됐다
6. 못됐다	못됐다	착하다	착하다
7. 못됐다	착하다	못됐다	못됐다
8. 못됐다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문방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바타놀이처럼 내가 설정하고 싶은 인물의 성격을 결정한 후 그에 맞는 이야기를 재구성하게 한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쥐 팔쥐전의 주제를 물은 적이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의 대답은 '권선징악'이었다. 틀린 대답은 아니다. 그러나 공쥐팔쥐의 이야기를 통해 '착하게 살다보면 꼭 복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밖에 얻을 것은 없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시도해 보았다. 뜻밖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냈으며 또한 다양한 주제를 도출시킴으로써 작품이 갖는 실제적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공쥐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가부장제도에서의 아버지의 부재를 통해 무너져 가는 봉건제도를 찾아냈으며, '공쥐 마을 사람들은 공쥐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인권유린을 경험하게 된다.

예시 2. 우화소설을 통한 돌려말하기 기법

우화는 짧은 분량에 포함된 단순한 내용과 그 상징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양식이다. 그만큼 논술적 요소가 충분한 장르이기도 하다.

- 작품명 : 토끼전
- 연습방법 : 동물세계를 인간세계로 전환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그로 인한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우화소설이 갖는 풍자성과 해학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서 우선 등장인물의 계층적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작품에 설정되어 있는 특징적인 사건이 갖는 사회적 성격을 해명한다. 셋째, 다양한 이본이 주는 다층적 의미를 찾아 우화적 형식의 돌려말하기 기법을 익힌다.

예시 3, 여성영웅소설을 통한 여성의식 관찰 : 고소설 중에는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우월하며 그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라는 내용의 '여성영웅소설'류가 상당량 있다. 조선시대는 가부장적 봉건사회라는 일반적인 시대적 배경 뒤에 그 당시 여성의식 속에 내재된 근대적 의식을 엿보으로써 오늘날 여성의식과 비교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남녀평등의식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 작품으로 <홍계월전>, <방한림전>, <옥주호연> 등을 추천한다.

2) 현대소설

요즘은 초등학교를 위한 근현대 소설집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재에 소설장르가 게재되고, 중학생이 되어서야 읽기 시작했던 우리나라 현대작가들의 작품이 그림을 동반한 동화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독자인 학생들은 작은 글씨로 뽁뽁한 소설을 품질 좋은 종이와 화려한 삽화로 장식된 현대소설을 큰 거부감 없이 읽게 된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특히 2-30년대를 배경으로 한 근대소설류나 50년대 이후 전후소설류는 현재 아이들의 감각과 이질적인 소재들이 많아 읽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부분이였다. 그러나 대입입시를 위한 독서의 일환으로 혹은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내신관리를 위한 방편으로 억지로 읽는 고통 아닌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소설도 논술의 한 재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의 한 조각이 될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예시 1 : 운수 좋은 날 : 현진건

수업 방법: 지은이 조사, 작품의 시대적 배경 확인 후 작품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는지 묻는 텍스트 내적 영역, 작품 속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찾는 확장 영역, 작품을 읽고 난 후 생각해 볼 수 있는 쓰기 영역(논술 영역)으로 구분한다.

<텍스트 내적 영역>

1. 이 소설은 1920년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사실주의 소설로 당시 사회상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적어 보세요. (10개 이상)
2. 이 작품 서두에 결말을 예측할 수 있는 복선으로 사용된 것은 무엇인가?
3. 우(雨)중에 세 번째 손님을 만난 김 첨지는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다고 했다. 김 첨지의 이런 마음의 이유에 대해 토론 후 정리해 보세요?

인력거가 무거워지면 김 첨지의 몸은 가벼워지고 인력거가 가벼워지면 몸은 다시 무거워진다.

4.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5. 김 첨지가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고도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6. 결말의 비극적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는 소재로 사용된 것은 무엇인가요?
7. 이 소설은 대화의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작중 인물을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 때 대화 속에 하층 노동계급의 삶을 리얼하게 그리기 위

해 사용된 것은 무엇인가요?

8. 이 소설에 전반적으로 사용되어 이 소설을 끌고 가는 표현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표현을 할 경우를 찾아 적어보세요.(3이상)
9. 이 소설의 제목을 바꾸어 보세요.
10. 이 소설의 마지막 결말 부분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보세요.

5. 그 밖의 다양한 논술 연습

논술을 준비하는 기간은 일정하게 정할 수 없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꾸준히 먹고 끝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의 성장기에 밥만 먹어서도 안 되고, 고기만 먹어서도 안 되듯이 논술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문학작품만 읽어서도,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서도 안 된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끼며 가슴 속에, 두뇌 속에 응어리진 그 무엇이 자리잡아야 한다.

요즘 논술고사의 새로운 경향은 도표나 사진 또는 미술작품 등을 분석, 감상할 줄 알아야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 개의 제시문이라면 한 개 정도는 나열된 글 단락이 아닌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의 맥락과 일치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기술된 글의 형태보다 난해한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연습해 두어야 한다. 음악 감상도 논술을 연습하는 좋은 방법이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느낄 수 있으며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문을 통한 논술 연습은 이미 보편화된 경우이지만 얼마만큼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다.

1) 만평

신문에 실린 만평은 글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만평은 사회상에 대한 신문사의 시각과 철학을 반영한다. 만평은 사회상을 해학을 곁들여 단순화시켜 전달함으로써 독자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고, 공분을 느끼게도 한다. 만평의 은유와 패러디, 자유로운 발상은 독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

신문만평을 현장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에는 만평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 사건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도 있고, 만평을 토대로 기사 작성하기, 만평 패러디하기, 만평 연결하여 소설 쓰기, 만평에 등장하는 인물 연구하기 등도 가능하다.

2) 만화

시사 만화, 상업 광고를 위한 만화, 해설형 만화,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만화 등 신문에는 다양한 만화가 있다. 만화를 이용하면 학습적인 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첫째, 재미있으니까 집중하게 되고, 둘째, 전체의 흐름과 부분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되어 이해력이 높아지며, 셋째, 만화를 그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다 보면 창의력이 신장되고, 넷째, 생각을 만화로 표현하면서 기억력이 증진된다.

3) 광고

신문광고에는 원색적인 표현이 많이 있지만 성 차별이나 성 불평등 교육에 활용한다든지 개성적인 자기 표현을 위한 수단이나 미술 영역에 활용하면 광고도 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신문 광고에는 귀중한 자료가 가득 들어 있다. 새로운 상품, 보다 나은 생활, 비즈니스 기회, 경영과제, 꿈과 낭만, 새로운 인생 등이 가득 담겨 있다. 학생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회사를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고, 신입사원은 업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며, 공무원이라면 산업의 과제를 알 수 있다.

4) 사실과 칼럼

신문의 사실은 여론을 주도하는 핵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론이 여과된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고 보는 것

은 착각이다. 각 신문사의 지향에 따라 논조가 분명히 다르고 현안이 되는 쟁점에 대한 시각도 다르다. 사실은 대부분 논리의 정연함과 설득력, 번득이는 재치가 넘치는 글들이다. 글의 구성 역시 탄탄하다. 이러한 사실을 단순히 읽기 자료의 차원을 넘어 논리적인 말과 글을 표현하는 학습 도구로 활용하면 아주 유용할 것이다.

칼럼은 내용이 유연하면서도 심도가 깊다. 장기적인 예견과 총체적인 분석도 찾아볼 수 있다.

5) 도표와 사진 자료

신문의 도표와 그래픽 자료는 분석 학습에 소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를 스크랩하여 분석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자료를 분석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뜻까지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신문도의 도표는 엄청난 통계자료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한 고미운 존재이다.

신문의 사진은 사진기자의 시각에 의해 사회현상을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비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6) 기사

기사는 신문기자가 쓴 글로 기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문제가 많다. 속보 경쟁에 시달리다 보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뒷감당을 우려하여 애매하게 표현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나 영어, 한자 같은 외래어를 남용하여 우리글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 신문활용교육에 임해야 한다.

6. 글을 마치며

글을 쓴다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만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우리는 글쓰기 변비에 걸린 양 어렵고도 고통스런 작업이 되어버렸다. 시험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누구이며 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을 살피게 되며, 내 주위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논술은 붓 가는 대로 마음대로 쓰는 글이 아니므로 논술에 적합한 글쓰기 절차를 익히면 된다. 글을 쓰는 것은 집을 짓는 과정과 같다. 설계도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글쓰기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지루하고 복잡하더라도 꼭 지켜야 하기에 글을 마치는 과정임에도 잠시 언급해야겠다. 우선 어떠한 글을 쓰더라도 반드시 유념할 것이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글이 되어야 한다. 글의 주제를 정했다면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좋은 재료 즉 글감이 준비되어야 한다. 글감을 통해 논술 평가자는 글쓴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평가의 기준을 삼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읽은 것, 경험한 것, 느낀 것 등을 적절히 내보여야 한다. 이 부분을 숙련된 솜씨로 내보이기 위해 본론에서 훈련한 것이다. 재료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구성이 잘 되어야 좋은 글이 된다. 스파게티를 양푼에 담은 것보다 예쁜 접시가 어울리듯, 글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단계식, 열거식, 점층식, 일반화·특수화의 방식, 변증법적인 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해야 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내용의 글도 적절한 구성을 통한 배열이 글쓰기에 필요하다. 집을 짓는 사람이 설계도를 보며 작업하듯 글 짓는 사람도 꼼꼼한 개요를 작성하고 그대로 글을 쓰게 되면 좋은 글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확하고 치밀한 개요작성은 글쓰기 마지막 과정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점임을 강조하고 싶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쓰는 일은 습관처럼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나를 찾는 과정으로 여기자.

새벽자연체험 프로그램



김연숙

· 국민윤리교육 85
·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최근에 나는 지역의 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새벽자연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였다. 그 이유는 자연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랄 때는 원하던 원하지 않은 방에서 멀리 떨어져 마당 끝에 위치한 변소를 가야 했기 때문에 캄캄한 밤, 눈 내린 새벽, 싸늘하고 차가운 공기의 감촉, 쏟아져 내릴 듯한 빛나는 별들, 고요하게 떠 있는 달밤에 잠겨들곤 하였었다. 이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이 우주로부터 전해오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우주와 소통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 오랫동안 도시 생활을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이러한 기억은 마치 전생의 잃어버린 낙원과 같이 느껴지게 되었고, 나의 맘과 몸속에서는 상실해버린 자연이 점점 트라우마로 새겨지는 듯하다.

어떻게 자연 속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을까? 이사를 할까? 전원주택을 지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지만, 아이들 교육문제 또는 문명으로부터의 소외 등의 이런 저런 이유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시멘트로 성냥갑처럼 짜인 아파트의 한 귀퉁이를 주저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마음 한 구석에는 내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리, 시원적인 우주의 소리를 들을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들곤 한다.

마음에 궁리가 분분하던 참에, 새벽자연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리에, 우리 집 작은 아이와, 몇몇 지인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약속된 날, 이른 새벽, 약속된 장소에 가니 작은 봉고차가 한 대 와서 우리들을 태우고 어디론가 향해 갔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새벽을 이용해 환경운동을 한다는 안내자는 새벽이 오는 푸르스름한 논둑길을 지나 잡풀이 우거진 산 밑 개울가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개울가에는 드문드문 백로와 작은 오리 새들이 날고 있었고, 멀리 산 위에서는 딱따구리가 울고

있었다. 얼마 만에 듣는 새의 노래 소리인가?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평화롭기보다는 애처롭게 쫓기는 느낌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이들의 서식처가 점점 침입받고 있으며, 이들의 삶의 영역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그마한 인기척에도 화들짝 놀라면서 몸을 숨기고 달아나는 새들의 모습은 인간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듯하였다.

새의 발자국을 찾던 안내자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오히려 SUV의 커다란 바퀴자국이 찍혀 있었다. 이곳은 차량통행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바퀴를 갖고 길 없는 길을 달리는 즐거움을 누리려는 차량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곳 하천변을 마구 달려 수풀과 잡목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곳에 살던 새들을 떠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과 더불어 그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시에서 설치한 <차량통행금지 표지판>인데, 어찌 된 일인지 구멍이 총총히 나 있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표지판을 표적삼아 총 쏘는 연습을 한다는 것이다. “누구를 향한 총알이란 말인가!” 가슴이 아리고 인간임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새벽자연체험 프로그램의 참여를 계기로 나는 이 세계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주 속의 한 작고 푸른 별인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어떤 존재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의 주장대로, 인간은 우주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것일까?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고통에 빠뜨리는 인간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왕처럼 군림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오만불손함, 오직 인간 자신만을 귀하게 아는 인간은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에 빠진 인간중심주의적인 존재들이 아닐까?

자연에 대한 인간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마도 마땅히 보아야 할 때 보지 못하는 것,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것,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 아닐까?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인간의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것

들에 대해서 재고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예컨대 호모 사피엔스로서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도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기 보다는 ‘무엇을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의 내용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오직 나를 위하는 것에만 사용해서, 오직 나의 존재의미와 나의 삶을 복되게 하고 편리하고 운택하게 하는 것에 전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인간만이 지닌 어떤 탁월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인간임, 인간의 인간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나의 외부성, 타자에 대한 생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지구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지지하고 있도록 해주는 물과 흙과 바람과 불의 지구적 환경의 구성요소들, 대지와 바다와 하늘과 풀과 나무들, 그리고 친밀하고 안온한 공기로 채워진 주거 속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가정이라는 동지,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와 이웃과 사회, 인류라는 인간 공동체, 내가 오기 이전에 이미 대대손손 전승되어온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이르는 연대성과 내가 죽고 나서도 이어져갈 수 있는 나의 아이와 그 아이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 나 자신의 살 권리,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에 대한 강력한 주장에 앞서 나의 밖에 존재하는 타자인 생명체들의 살 권리, 행복하고 자유로운 권리에 대한 존중의식을 지닌다면, 나와 타자의 관계는 타자에게 자신을 승인받고자 하는 생사를 건 투쟁으로부터 벗어나 타자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말을 이 기회에 다시금 음미해 본다.

[동문회비 납부안내]

은행에 가실 때 잊지 말고 동문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 장학기금)를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로입금

동문회보에 동봉된 지로를 이용합니다. (용지에 자세한 인적사항을 적어 보내 주시면 동문 찾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통장입금

아래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고 타인의 이름으로 입금할 경우 동문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304-12-236164 (예금주 : 충북대학교총동문회 김주섭)
▶ 연회비 30,000원 / ▶ 평생회비 : 100,000원 이상

동문회비! 모교 사랑의 열매이며 동문회를 키우는 뿌리입니다.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My School Love카드 신규발행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My School Love 카드 신규발행을 농협중앙회·BC카드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문 및 개신가족의 카드사용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이 발전기금으로 적립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대상: 동문, 개신가족(교직원, 학부모, 출신인사 등)
- 카드명칭: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My School Love 카드
- 발급기준: ▶ 개인회원: 우량 - 국내 전용 및 국내외 겸용 (MC) ▶ 개인체크: IC카드
- * 사진, 플래티늄, VISA, JCB카드는 발급 제외
- 단, 후불교통카드는 희망자에 한하여 발급
- 연회비: ▶ 개인: 초년도 면제 ▶ 체크카드: 면제
- 발급방법: 전국 농협 모든 자점에서 발급 및 교체 가능 (기존 BC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교체 가능)

회원제공 서비스

- 가신용카드(조아카드 서비스)
- 전국 농협 매장 2% 할인 (월 이용액 기준 50만원 한도)
- 전국 주요 기행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 SK주유소 리더당 40원 할인 (1일 2회, 1회 10만원, 월 6회)
- 가입 초년도 연회비 면제

나. 체크카드 (OK Cashbag 체크카드 서비스)

OK Cashbag 포인트 제공 - 신판이용금액별 최고 0.5%까지 적립

금 액	월 10만원 미만	월 50만원 미만	월 100만원 미만	월 100만원 이상
적립률	미제공	0.2%	0.3%	0.5%

최선을 다하는 기업 성실한 자세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산레미콘(주)



옥산아스콘(주)



환희개발(주)



회 장

권 광 택

(경영정보00)

대표이사 권 오 형 (AMP 19기)

대표이사 박 선 응 (AMP 26기)



玉山아스콘(株)

玉山레미콘(株)

歡喜開發(株)

■ 본사 : 충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42-1
 TEL : 043)260-2222~4, 260-1775
 FAX : 043)260-1824
 ■ 레미콘 출하실 : 043)260-2226
 ■ 아스콘 · 골재 출하실 : 043) 260-2206
<http://www.e-oksan.co.kr>
 E-mail : e-oksan@hanmail.net